

우리나라 신에 관한 研究

金 芝 嬉

I. 序 論	A. 신에 대한 禁制
A. 研究目的	B. 신분에 따른 신의 着用
B. 研究範圍 및 方法	IV. 朝鮮時代 신의 造形的 分析
II. 신의 歷史的 背景	A. 形 態
A. 上古時代	B. 文樣과 色
B. 三國時代	C. 材 料
C. 高麗時代	V. 신의 美的 特性과 服飾史的 意味
III. 朝鮮時代신에 대한 禁制 및 신분에 따른 신의 着用	VI.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A. 研究目的

人間生活의 시작과 함께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신은 차츰 장식적 의미가 부여되고 社會文化가 발달함에 따라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신은 服飾의 한 요소로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미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당시의 社會文化的 현상과 가치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歷史的 背景으로 文獻을 통한 三國時代 및 高麗時代의 신의 着用을 알아보고, 朝鮮時代に 들어와 신에 내려진 禁制와 신분에 따른 신의 착용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삼국시대 벽화 및 유물을 통하여 신의 기본형을 규명하고, 조선시대 신의 조형적 분석을 통한 미적 특성과 복식사적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B. 研究範圍 및 方法

신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수집 자료는 고구려

고분 변화 7점, 고분 출토 유물 19점, 조선시대 유물 80점 등이다.

자료 모집은 박물관 발굴조사 보고서, 대학박물관 및 기타 박물관의 유물 도판, 그 외 유물 도판을 통한 간접 자료와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를 訪問하여 18세기 유물 10점을 촬영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소장 유물 27점을 직접 조사하여 총 106점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단 지면관계상 필요한 자료만을 게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歷史的 背景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신의 형을 고찰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신에 대한 금제 및 신분에 따른 신의 착용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형태·문양·색·재료 등의 조형적 요인에 따른 분석을 하여 신의 미적 특성과 복식사적 의미를 論하고자 한다.

II. 신의 歷史的 背景

上代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신은 형태상으로 보아 대체로 靴와 履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靴는 防浸·防寒에 적당하여 武風的인 北方族이 많이 신었고, 履는 文秩的인 南方族이 혼

히 신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地理的 條件때문에 오래전부터 混用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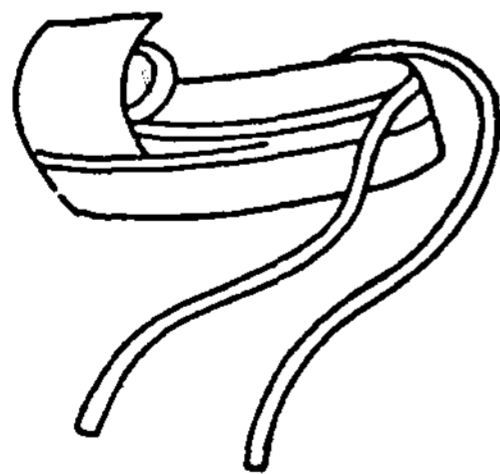
A. 上古時代

扶餘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衣尙白 白布大袂袍袴 履革踏”라 하여 革踏를 신었음이 나타나 있다.

馬韓에서는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足履 革躡蹻”라 하였고, 「晉書 四夷 馬韓條」에 “草躡”, 「通典」에 “草履”가 나와 있어, 上古時代에는 가죽이나 풀을 이용하여 만든 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踏, 躡, 蹻 등 운두가 얇은 短鞣形의 신이 보일 뿐 長鞣形의 靴에 해당하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 上古時代 신에 대한 기록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古代 中國의 신의 제도를 통해 上代에 있었으리라 추측되는 신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漢六朝時代의 주된 신의 종류는 履·舄·鞣이다. 履는 원래 “디디다, 밟다”의 의미로 履物類 전체를 나타내고, 독특한 형상은 없는 것 같다.¹⁾ 다만 신의 일반적 意味를 가져서 鞋, 屣, 屨, 躡, 沓 등 모든 短鞣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 長鞣의 靴와 구별된다.²⁾

舄은 祭服 전용의 신으로 「揚子方言」에 “中有木者 謂之複舄”이라 하여 履는 單底이고 舄은 複底임을 구별하였다.³⁾ 또한 「釋名」이나 「古詩注」에도 舄이 複底인 것을 특징으로 들었으며,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는 여름에는 葛 혹은 麻,



〈圖 1〉 舄(동양복장사 논고)

겨울에는 皮 혹은 木이 사용되었다.⁴⁾ 형태에 있어서는 履와 大同小異하였다고 본다. 〈도 1〉

鞣는 鞣라고도 하는데⁵⁾ 글자의 형태로 보아 革履의 일종이다. 後唐馬槁의 「中華古令注 卷上」에서 鞣의 유래를 보면, 鞣는 胡服에서 유래된 것으로 趙武靈王이 처음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鞣가 붙어 있어 騎馬에 편리한 것이다. 趙武靈王이 사용하던 鞣는 신목이 짧았으나 뒤에 馬周가 신목을 길게 고쳐 동여매게 하였으며, 동여매는 것이 뒤에 鞣帶로 발전된 것 같다.

履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2개의 齒(굽)가 있으며 古代에는 貴賤의 구분없이 착용하였다.⁶⁾ 「釋名」에 “履, 措也, 爲兩足措以踐泥地也”라 하여 진흙 땅을 밟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三才圖會」에 의하면, 春秋時代에 유행하였고 그 형태는 〈도 2〉와 같다.⁷⁾



〈圖 2〉 木履(三才圖會)

B. 三國時代

1. 高句麗

「北史 列傳」, 「周書 異域傳」, 「隋書 東夷傳」, 「舊唐書 東夷傳」, 「新唐書 東夷傳」에 “黃革履”



〈圖 3〉 力士像의 신(한국미술전 4)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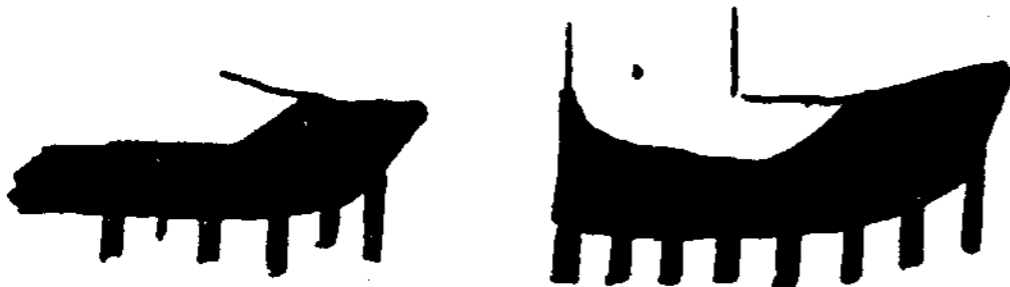
1) 杉本正年(1981),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p. 235.
 2) 李如星(1945),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p. 150.
 3) 原田淑人(1967), 「增補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p. 148.
 4) 杉本正年(1981), p. 239.
 5) 王宇清(1976), 「中國服裝史綱」, 修訂本,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p. 113.
 6) 王宇清(1976), p. 114.
 7) 「三才圖會」, 衣服三卷, p. 1562.

가 나타나 있고, 「舊唐書 志音樂」에 “赤皮靴, 烏皮靴”가 있고, 「韻玉」에 “末靴”가 보여 靴와 履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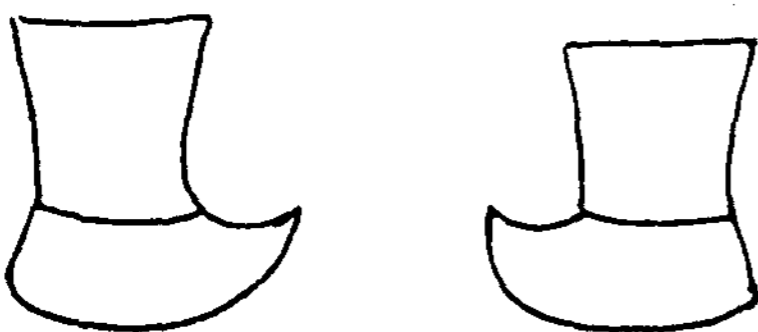
古墳壁畫를 통하여 형태를 보면, 通溝 四神塚 力士像의 신<도 3>이 履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요즈음 신과 유사하다. 通溝 17호분의 守門神將像의 履<도 4>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 ‘곤돌라’ 같은 形을 한 화려한 형태의 것이다. 履의 다른 한 형태는 通溝 三室塚 禮甲武人의 것<도 5>으로 운두가 얇고 코가 뾰족하며 신창



<圖 4> 守門神將의 履(한국미술전집 4)



<圖 6> 金銅履(국립박물관)



<圖 7> 쌍영총 인물도의 靴(한국미술전집 4)



<圖 8> 平床앞에 놓인 靴形(매산리 사신총의 남너도) (한국 장신구 미술연구)

에는 못을 박아 스파이크식으로 되어 있다.⁸⁾ 이와 유사한 것이 <도 6>으로 앞창이 약간 들리고 바닥에 긴 못이 박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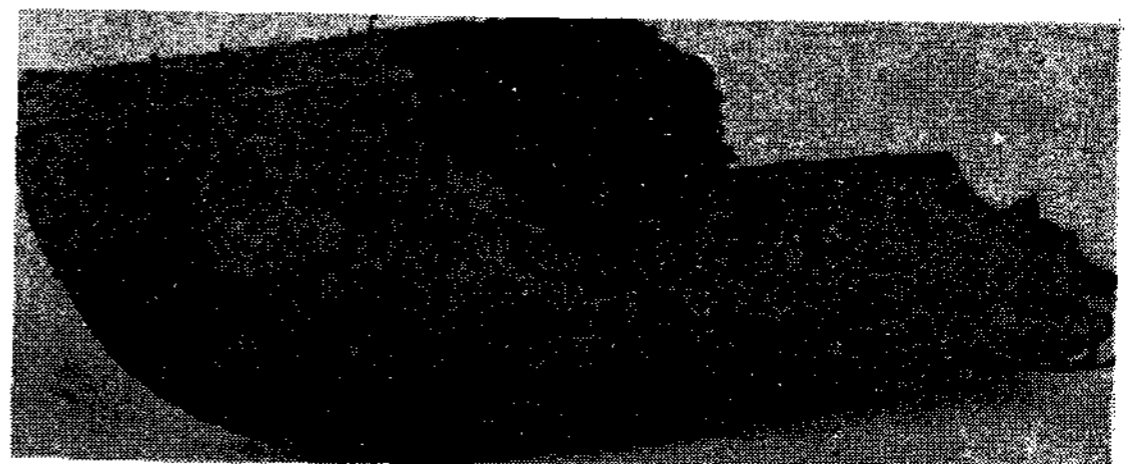
靴의 형태는 梅山里 四神塚과 雙楹塚 인물도에서 볼 수 있는데, 雙楹塚의 것<도 7>은 요즈음 반장화 형태로 李朝代의 水靴子와 별로 다르지 않고, 梅山里의 것<도 8>은 끝이 쇠뿔같이 날카로운 형태로 모두 靴의 목이 길다.

2. 百濟

靴는 문헌이나 유물에 보이지 않으나 高句麗나 新羅에서와 같이 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履는 「唐書」에서 王이 烏革履를 신는다 하였고, 「三國史記 古爾王條」에 “烏韋履”와 “악공이 皮履를 신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馬鞞의 뒤를 이어 풀을 재료로 만든 草履, 草躡, 草躡蹋 등이 있었으리라 본다.

百濟에서 出土된 金銅履로는, 公州 宋山里 武寧王陵의 王과 王妃의 飾履가 있는데, 표면은 忍冬唐草文을 透作한 金銅板을 씌우고, 바닥에는 스파이크 같은 尖形金具가 부착되고 내부에는 布나 가죽을 댄 흔적이 있다<도 9>. 이와 유사한 것은 全南 羅州郡 潘南面 新村里 9號墳의 飾履<도 10>로, 바닥에 단면 4각형인 커다란 못구멍이 있고 앞부분에 길이 1.5cm 넘는 커다란 스파이크형 못이 남아 있다.



<圖 9> 武寧王陵出土 金銅飾履(王妃) (韓國의 美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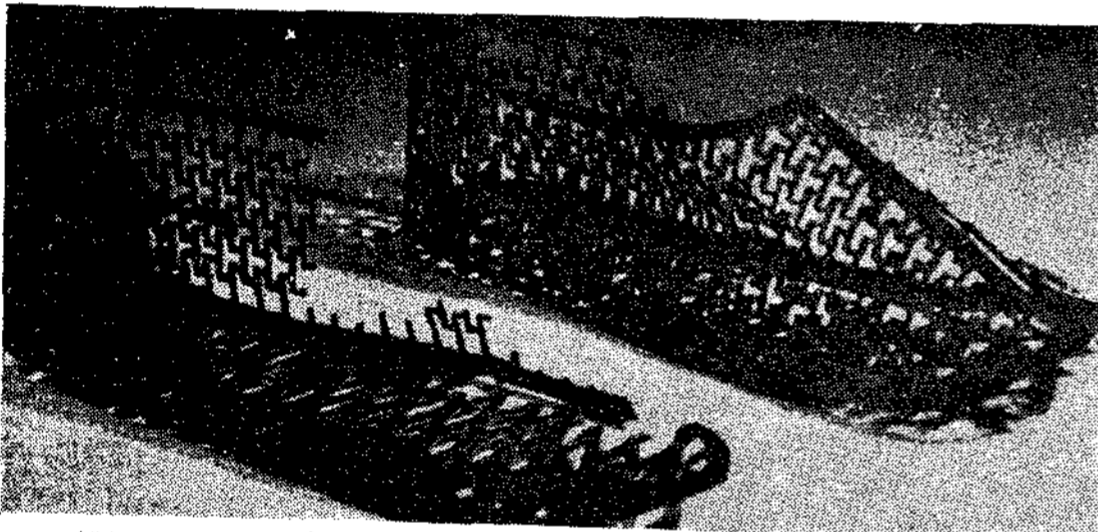
8) 이은창(1978), 「한국 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346.

9) 이은창(1978), p. 343.



〈圖 10〉 新村里 9號墳出土 金銅飾履(韓國의 美 22)

公州부근에서 出土된 金銅履〈도 11〉는 亞字文을 透刻한 銅板으로 만든 것으로 구조상 매우 軟弱하여 實用의 목적은 아닌듯 하다.



〈圖 11〉 公州부근出土 金銅透刻履(이대 박물관)

3. 新 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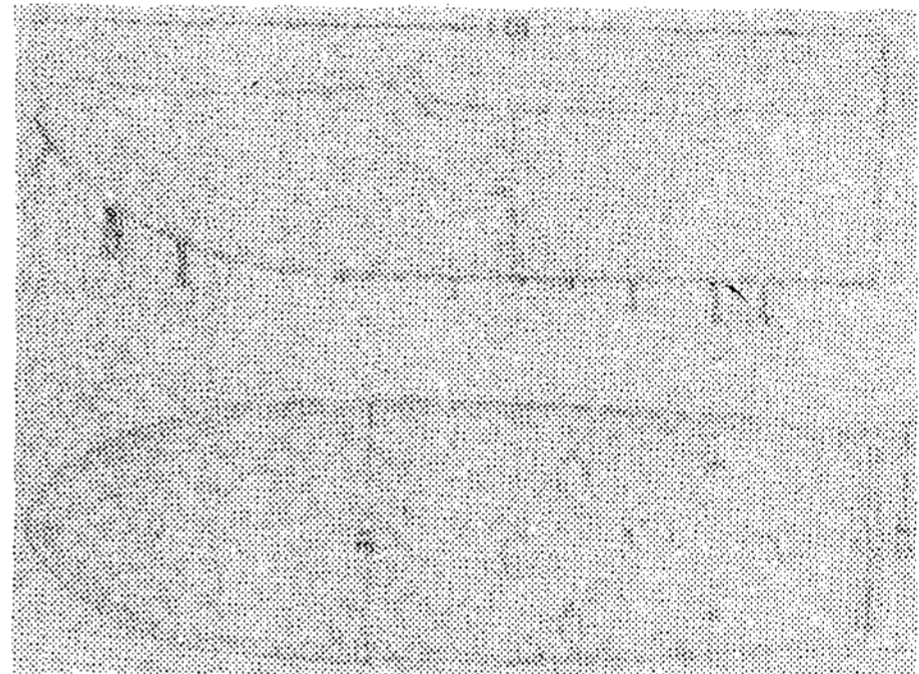
新羅時代에는 “洗”라는 것이 梁書와 南史에 나타나는데 이는 履를 나타낸다고 본다. 「三國史記」에는 “紫皮靴, 烏皮靴, 麻履, 鞞, 皮絲履, 罽羅履, 繡羅履, 總羅履”, 「韻玉」에 “絲鞋”, 「三國遺史」에 “芒鞋” 등이 보인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靴는 男子만 신고 履는 男女 共用이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新羅 古墳에서는 많은 金銅履가 出土되어 당시 왕실이나 귀족의 短靴形의 신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신의 바닥이나 앞부분에 步搖가 붙어 있는 것은 金鈴塚, 銀鈴塚, 梁山 夫婦塚, 현풍 가야고분, 大邱 출토 金銅履 등이 있고(도 12~도 14), 또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바닥에 스파이크식의 못이 박혀 있는 것은 황남 대총 北墳에서 出土된 金銅製 透彫신〈도 15〉 등이 있다. 또한 義城 塔里에서 出土된 金銅履〈도 16〉는 亞字文을 변형한 것 같은 문양을 투각한 것으로 백제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金銅履들은 高句麗 古墳



〈圖 12〉 金鈴塚金銅履實測圖(慶州 金鈴塚·飾履塚)



〈圖 13〉 梁山 夫婦塚 出土 實測圖(梁山 夫婦塚と其遺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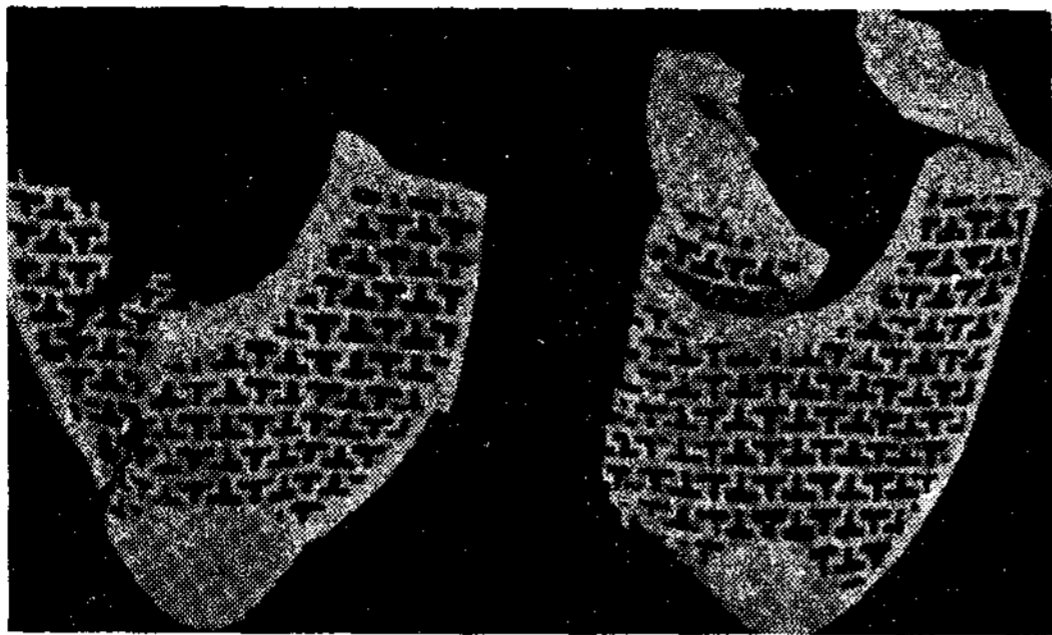


〈圖 14〉 大邱 출토 金銅履 실측도(韓國의 美 22)



〈圖 15〉 金銅製 透彫신(황남 대총 北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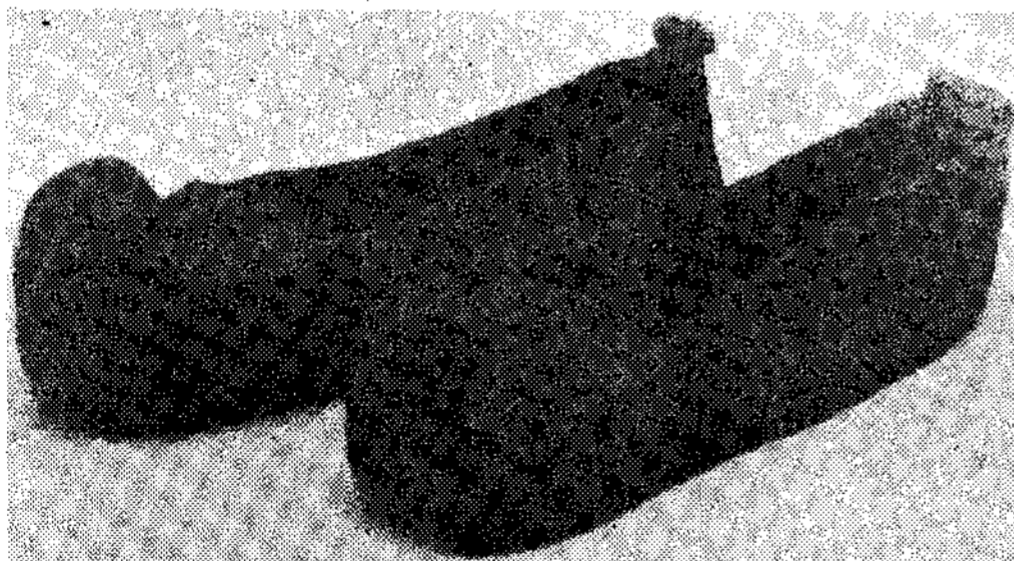
壁畫의 바닥에 못이 박힌 신이 三國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다음의 공통 점도 갖고 있다. 첫째, 화려한 문양이나 영락을



〈圖 16〉 義城 塔里 출토 金銅履(義城 塔里 古墳)

장식하고, 바닥에 못을 박은 스파이크 식의 거대한 신이다. 둘째, 신고가 솟고 앞바닥이 들렸으며 뒷꿈치는 각진 것과 둥근 것이 있어 당시 草履나 革履의 형태와 같은 전형적인 신이다. 셋째, 古墳에서 出土된 피장자의 服飾은 금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과대와 요패를 차고 금·은·옥으로 衣服을 장식하며 발에 金銅履를 신고 있다.¹⁰⁾ 그런데 이들 飾履는 透刻履를 제외하고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祭典이나 儀式 때 잠시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 외에 句新羅 土履〈도 17〉가 있는데 明器이지만 당시 사용했던 신을 충실히 재현한 점에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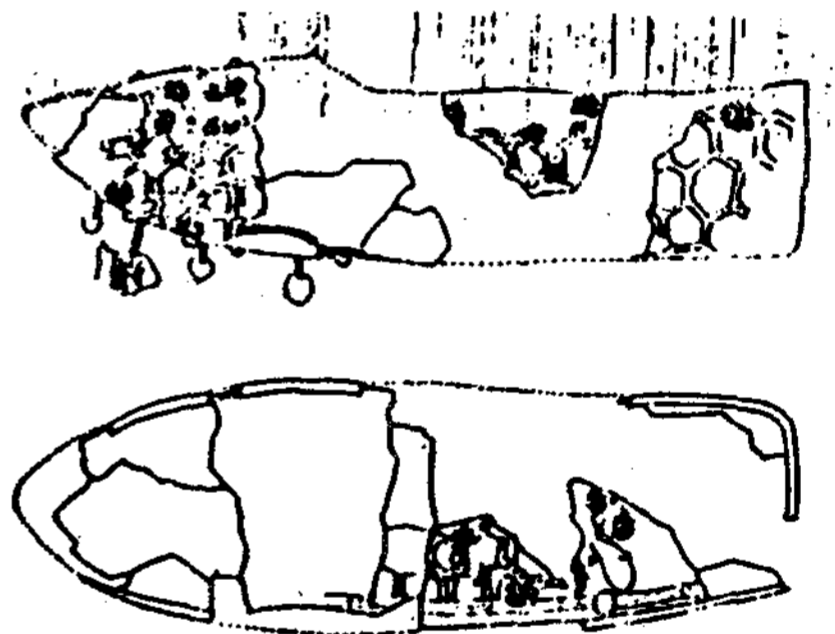


〈圖 17〉 土履(호암미술관 명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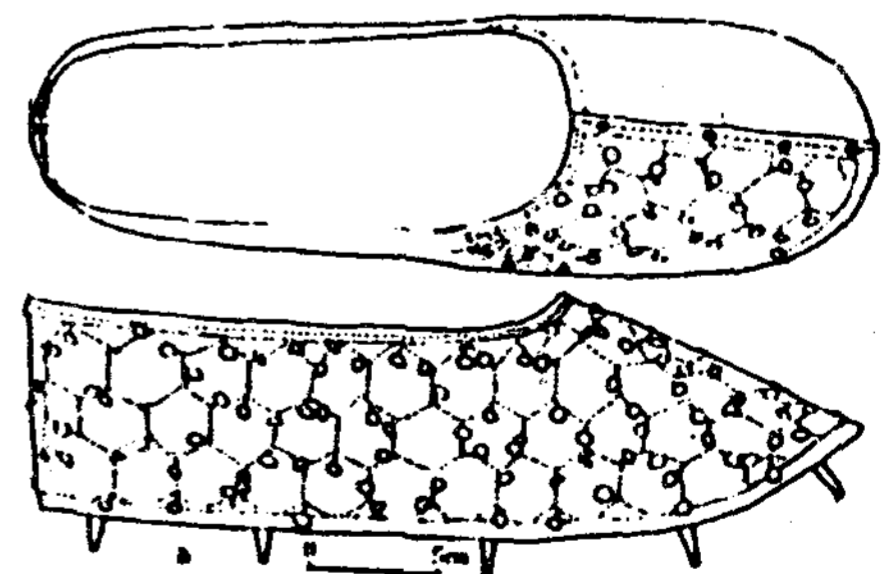
이상에서 三國時代 신의 制度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당시의 中國과 日本의 신의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의 古墳時代의 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日本 하니

와에 나타난 신은 대개 가죽신 타입인데, 이는 기마 민족의 일본 정복설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¹¹⁾ 또한 新羅 古墳에서 出土된 것과 같은 飾履가 滋賀縣 稻荷山 古墳과 熊本縣 船山 古墳에서 出土되었다〈도 18, 19〉. 이들은 小步搖를 달아매거나 바닥에 釘을 박은 점 등 전체적 신의 형태로 보아 三國의 것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나라고교 교정에서 출토된 나막신(木履)〈도 20〉은¹²⁾ 古新羅 土履와 비슷하며 오늘날 우리 고무신과도 흡사하다.

정창원 錦履〈도 21〉는 가죽으로 만든 표면에 紫地科文錦을 붙인 것으로 당시 新羅의 것과 유사하며, 中國에서 出土된 錦鞋〈도 22〉는 정창원에 전해지는 繡線鞋〈도 23〉와 형태상 상당히 비슷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古代 日本은 三國이나 中國 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圖 18〉 滋賀縣 稻荷山 古분출토 履(한국복식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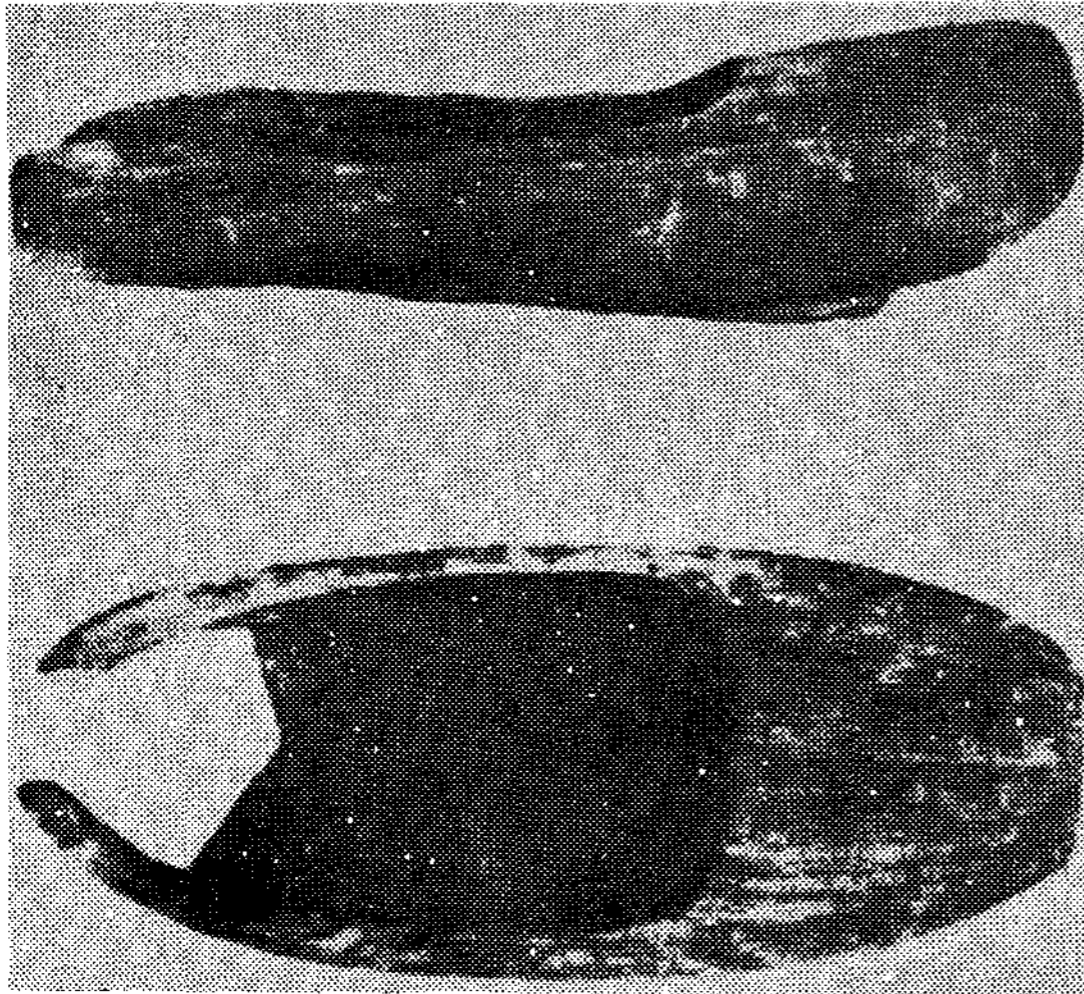


〈圖 19〉 熊本縣 船山 古분출토 履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비교한국문화)

10) 이은창(1978), p. 352.

11) 김동욱(1981), “衣袴着用民族 日本征服王鮮說”, 「일본 문화의 원류로서의 比較韓國文化」, 삼성출판사, p.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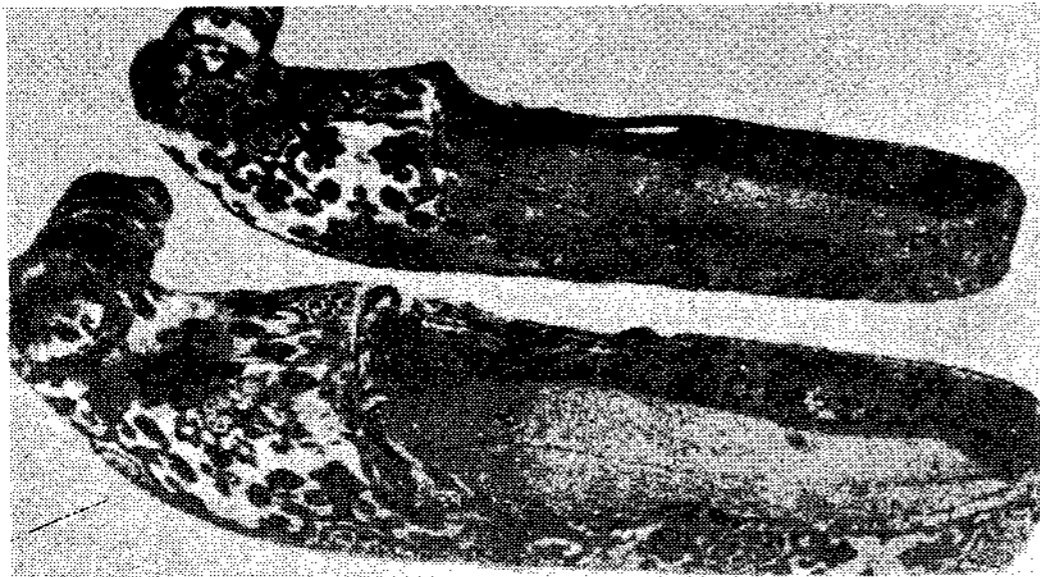
12) 關根眞隆(昭和 49), 「奈良朝服飾の研究」, 本文編, 東京: 吉川弘文館刊行, p. 272.



〈圖 20〉 木履(奈良朝服飾の研究)



〈圖 21〉 錦履(奈良朝服飾の研究)



〈圖 22〉 變形寶相花文錦鞋(漢唐の染織)



〈圖 23〉 繡線鞋(奈良朝服飾の研究)

C. 高麗時代

高麗時代는 資料面에서 제일 盲點의 時代이므로 「高麗史」나 「高麗圖經」을 參考로 당시의 신을 살펴 볼 수 있다.

記錄에 처음 나타나는 冕服의 신은 毅宗朝 「詳定禮文」에 “赤舄”이 있고, 이것이 恭愍王代에는 赤履로 바뀌었고, 朝服에 있어서는 黑舄이 사용되었으며, 王妃의 신은 靑舄이었다.

百官의 신은 「高麗史 輿服志」에 舄이 기록되어 있는데 恭愍王代에는 黑履로 바뀌었다.

하층 계급에서 사용된 신은 「宣和奉史 高麗圖經」에 “革履·草履·皂履·革履·烏革鈴履·烏革句履” 등이 나와 있어, 당시 하층민은 주로 履類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草履之形前低後昂 形狀詭異 國中無男女少長悉履之”라 하여 전국에서 男女老少 모두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모양이 괴이한 草履를 신었다 한다. 따라서 革履는 주로 公席에서 신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거의 草履를 많이 신었다.

Ⅲ. 朝鮮時代 신에 대한 禁制 및 신분에 따른 신의 着用

朝鮮時代는 어느때보다 分화가 발달하고 신분 계급이 뚜렷한 社會로, 이러한 背景은 신에까지 영향을 주어 前時代에 비하여 형태나 재료면에서 많은 차이가 생겨났고 신분에 따라 착용하는 신의 구분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신에 내려진 禁制를 통하여 당시의 신의 制度를 알아보고, 각 신분별로 착용하였던 신을 살펴봄으로써 朝鮮時代 신에 대한 理論的 考察을 하고자 한다.

A. 신에 대한 禁制

世宗 8年 1월에 司憲府에서 啓하였는데 “계급에 따라 의복제도는 형식이 정해졌으나 신에 대해서는 제정되지 않아 工商公私賤隸까지 靴를 신고 參外 및 無識人도 套를 신어 上·下階級の 구별이 없다”¹³⁾고 하여 禮曹에서 套·靴·皮草

13) 「世宗實錄」8年 1月.

司憲府啓 儀章服飾之節 所以辨上下明等威也 本朝尊卑服飾 皆有品秩 粲然有文 獨於靴鞋之節 不曾詳定 甚至市井工商 公私賤隸 率皆着靴 參外及無識人 亦皆着套 不唯上下無等 皮價騰湧 禁殺之令雖嚴 而竊盜牛馬者相繼 弭盜之方亦不可不慮也 伏望命禮曹詳定 以明上下之分 以塞盜竊之源 命下禮曹 與政府諸曹同議 議曰.

鞋를 금지하였다. 또한 同王 11年 2月에는 司憲府에서 다른 服飾禁令과 함께 신에 대한 禁制를 公告하였는데 “...大小人員及工商人 起子靴禁止...庶人及工商賤隸斜皮鞋鞋禁止...常人 套鞋禁止”라고 하였다.

同王 28年 5月에는 議政府에서 服色詳定條件을 啓함에 있어 제 2 조에 “流品朝士 및 有蔭子弟外에는 狹皮鞋, 唐皮草鞋를 신지 못하고, 일반 여인은 紗羅綾段鞋를 신지 못한다”¹⁴⁾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狹皮鞋나 唐皮草鞋, 紗羅綾段鞋 등이 일반인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世祖 11年 3月에는 金新民이 “庶인이 狹金鞋까지 신으니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후 睿宗 元年 7月에 詳定所에서 啓하여 “禁大小人起子靴...禁堂上官狹金鞋”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世宗대에 禁止시켰던 起子靴가 계속 신겨졌음을 알 수 있고, 世祖代부터 狹金鞋까지 신겨졌음을 볼 수 있다.

成宗 元年 1月에는 “朝官은 대괄 안에서 套鞋를 착용함을 금지하지 말라”하였고, 同年 6月에 “斜皮鞋飾鞋 신은자를 구속하지 말라”고 하였다. 同王 2年 11月에 禮曹에서 小童과 女人의 賤者는 短靴의 사용을 금지케 하자는 節目을 詳定하여 올렸고¹⁵⁾ 다음해 正月에 短靴와 禁令이 포함된 禁奢侈節目을 내렸으니 “말탈때와 兩具를 갖추는 외에는 아동이나 婦女가 短靴를 신는 것을 한결같이 금지하게 하소서...”¹⁶⁾이다. 따라서 당시 短靴가 있어 상당히 편리하여 일반 婦女子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年 正月의 禁奢侈節目에서 “옛적에 있던 儒生은 모두 麻鞋를 신고...근래에는 목화나 가죽신에 이르러

서도 士大夫와 다름이 없으니...”¹⁷⁾라 하여 당시 儒生들이 士大夫와 같이 사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同王 20年에는 僧侶의 皮鞋着用을 禁止하였고 이로써 당시 승려들이 皮鞋를 愛用했음을 알 수 있다.

中宗대에 이르러서는 民의 皮鞋着用 禁止와 女人의 童靴着用 禁止, 金線鞋에 대한 禁制가 있었다.

肅宗代에는 紙鞋가 民間에 流行이 되어 紙鞋를 만들기 위한 材料때문에 책을 잃는 일이 많아 이를 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正祖代에는 白靴着用이 유행하여 “禁朝臣白靴入闕之謬習”라고 朝臣들이 白靴를 신고 입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상에서 朝鮮時代 신에 대해 내려졌던 禁制를 살펴보면, 이들 禁制는 奢侈禁止 뿐만 아니라 身分의 確立을 위한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禁令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正祖 20年 4月에는 “...사치가 풍습을 이루고 재물을 낭비함이 날로 불어나서...僉僕의 도포와 신이 의연히 士大夫의 용의이며...”¹⁸⁾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流行과 時俗은 抑制하기 힘든 것임을 말해준다.

위의 禁制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신분에 맞지 않은 신을 금제한 것은 世宗 8年の 套·靴·皮草鞋禁止와 世祖의 庶人의 狹金鞋 禁止 등이다.

② 색에 대한 禁制는 正祖代의 白靴着用의 禁止이다.

③ 재료사용에 있어서의 제한을 한 것은 紗羅

14) 「世宗實錄」 28年 5月.

流品朝士及有蔭子弟外 毋得用紗羅綾段綵絹裏子護膝眞絲帶狹皮鞋唐皮草鞋 女人亦毋用紗羅綾段鞋 違者痛治 右條依事目施行 但有蔭子弟改衣冠子弟何如

15) 「成宗實錄」 2年 11月.

傳于禮曹曰 小童與女人之賤者 皆着短靴 ...禁制 節目詳定以啓

16) 「成宗實錄」 3年 1月.

騎馬時及兩具外 兒童婦女着短靴者一禁一庶人婦女鞍上坐子 並用綵段 爭務華美實爲奢侈 並禁

17) 「成宗實錄」 3年 正月.

成均館 風化之源 所宜敦尚儉素 謹勅修整 在昔儒生 皆着麻鞋 無有騎馬者 近來率皆乘肥馬衣美服 至於靴鞋 無異士大夫 未有一人挾冊而行者 士俗不古職此之由 令學官檢察 頑不率教者 黜學停學

18) 「正祖實錄」 20年 4月.

以言乎風俗 則奢侈成風 糜費日滋 市井之巾服 殆同朝士之樣 僉僕之袍鞋 依然士夫之儀 加髻之罷 欲爲祛奢 而單髻倍高 青篋之制 欲爲省費 而紬衣反華 至如第宅之踰制 飲食之尚侈 尤爲耗財之極弊也 賜批削圭鎮職

綾段鞋·唐皮草鞋·紙鞋 등의 禁止이다.

④ 화려한 장식에 대한 제한은 斜皮粧飾鞋·金線鞋 등의 禁止이다.

B. 신분에 따른 신의 着用

왕의 신은 國末까지 赤鳥을 사용하였고 常服에는 白鹿皮鞋를 신었으며 國末에 이르러서는 平時에 熊皮鞋나 鹿皮鞋 등의 鞋를 사용하였다.

百官은 「經國大典」에 朝服과 祭服에 黑皮鞋를 신고, 公服에는 黑皮靴, 堂上官의 常服에는 狹金靴를 신고, 國末에 와서는 木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木靴는 朝服에서 뿐만 아니라 公服의 黑皮靴, 常服의 狹金靴 대신으로도 착용하였다.

儒生들은 원래 麻鞋, 즉 미투리를 신었는데 점점 사치스러워져 鞋·靴가 士大夫와 같아져 이를 금지시키는 법까지 제정되었다. 國末에는 鞋를 신어 黑鞋나 雲鞋를 신었다. 庶民은 옛부터 사용되었던 草履, 麻鞋등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國末에는 三色鞋라 하여 짚신·나막신·미투리가 있었다.

여자의 신으로는 王妃의 것으로 鳥이 사용되었고 宮中에서는 黑熊皮花溫鞋, 紫的鄉織花溫鞋를 신었고 國末에는 즈덕향직운혀·다홍치화단운혜·다홍별문단당혀 등이 있었다.¹⁹⁾

일반 婦女子의 신으로 紗羅綾段鞋, 短靴, 童靴, 金線鞋 등이 있음은 앞에서도 보았다. 상류층 女人들은 宮中에서 사용되었던 唐鞋·雲鞋가 재료를 달리하여 사용되었고 비오는 날을 위한 징신, 나막신 등이 사용되었다. 서민들은 草鞋·麻鞋 등을 착용하는데, 좀더 고급스러운 麻鞋는 상류층에서도 사용하였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짚신은 거칠고 간단한 것이었다.

IV. 朝鮮時代 신의 造形的 分析

수집된 朝鮮時代 신의 총수는 80점이다: 종류별로는 太史鞋 7점, 발막신 2점, 皮鞋 4점, 唐鞋 4점, 雲鞋 13점, 짚신 10점, 나막신 12점, 미투리 4점, 짚신 5점, 靴 13점, 꽃신 6점이다. 이를 통해 그 形態, 文樣, 材料, 色등을 분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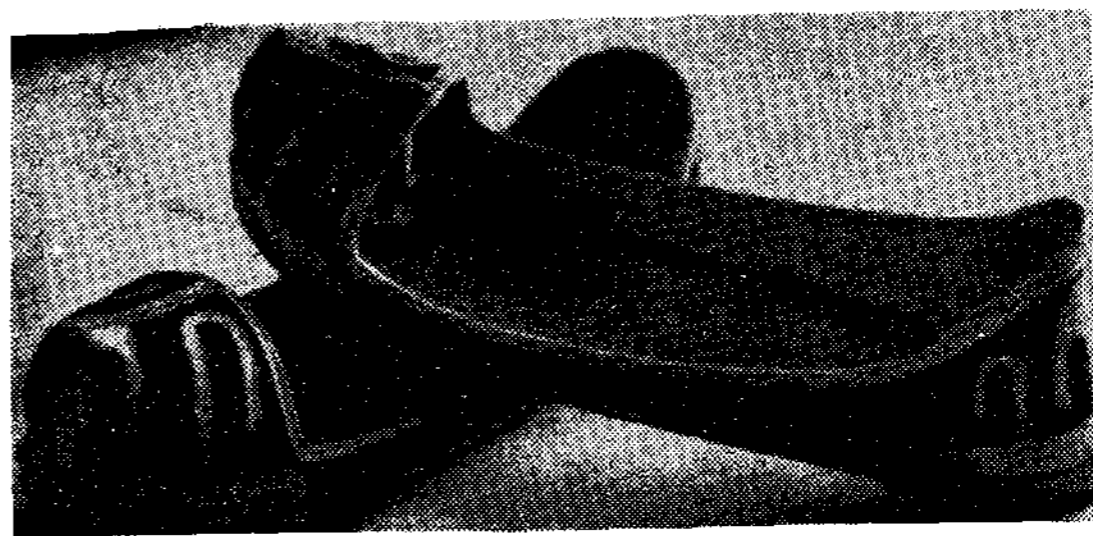
봄으로써 朝鮮時代 신의 造形美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形 態

朝鮮時代 신의 形態는 鞋와 靴의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三國時代 以來로 계속된 전통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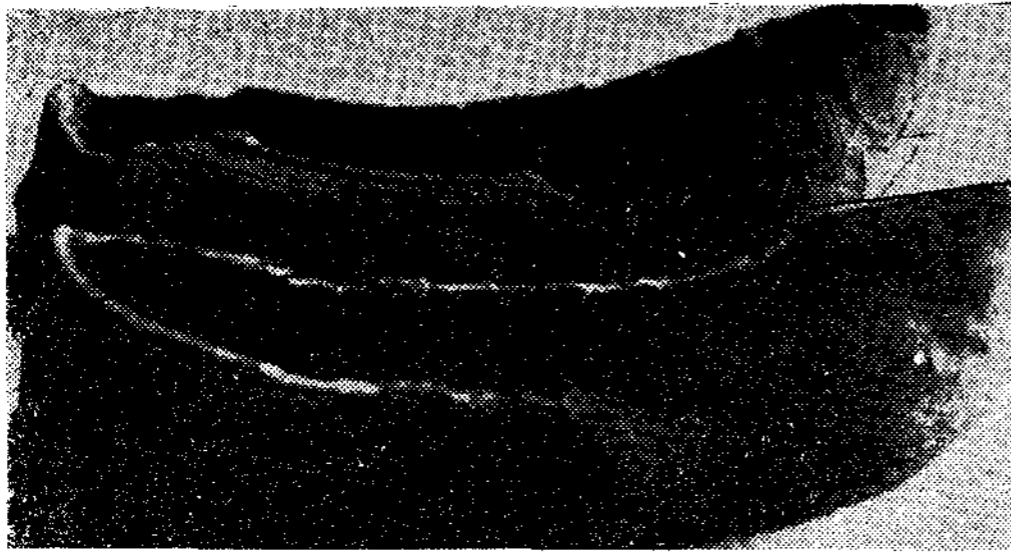
太史鞋는 朝鮮後期の 것이 모두 운두가 깊지 않고 앞코가 높고 넓은 형태이다<도 24>. 太史鞋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18세기 중기의 유물이 2점 있는데<도 25-1, 25-2>, <도 24>의 太史鞋와는 재료나 색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類形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문양이 태사문과 흡사하여 형태면에서 태사혜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高句麗 古墳壁畫의 履형태와 비슷하여 태사혜보다는 앞코가 좁고 뾰족하며, 신을 올타리는 각이 생기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형태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 26>과 같다. <도 26>을 보면, 우리나라 신의 형태는 고구려 벽화의 履의 형태가 朝鮮時代까지 계속되어, 18세기 중기의 유물과 같이 앞코가 뾰족하면서 신을 올타리가 두껍고, 앞코에서 뒷축에 이르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되어져 있다. 이 형태가 조선후기에 와서는 태사혜와 같이 신을 올타리가 얇아지고 코에서 올타리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게 변하여 조선후기 남자용 신의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사료된다.

남자용 신의 다른 한 형태인 발막신<도 27>은 태사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앞코가 넓적하고 뒤축과 코에는 켜맨 솔기가 없다. 신의 바닥이 정면에서 보일 정도로 위로 올라갔고, 신을 올타리 부분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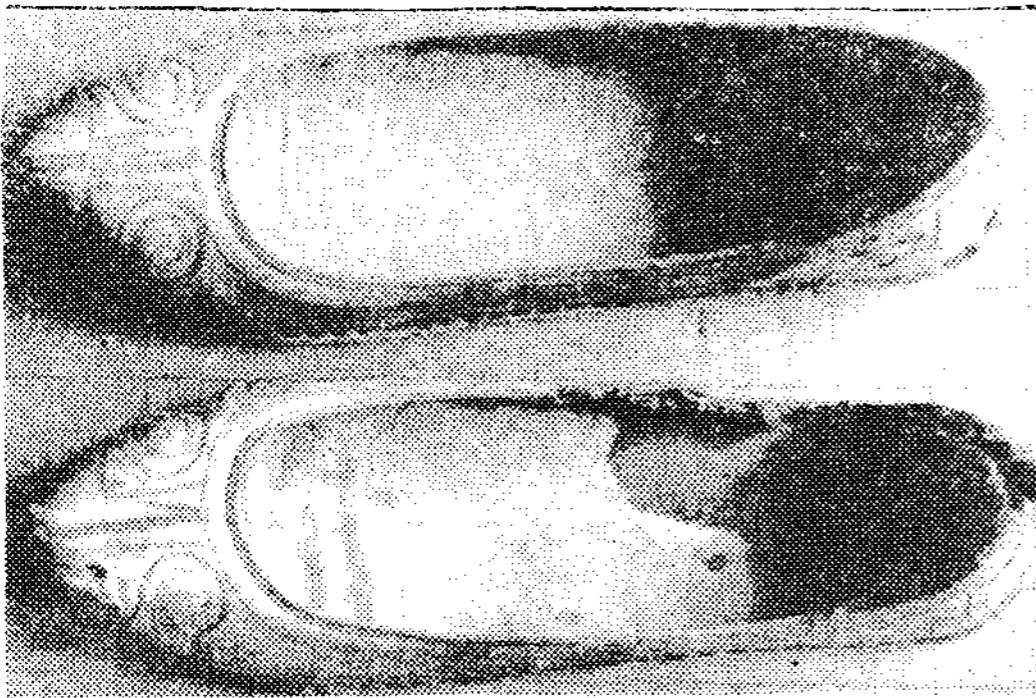


<圖 24> 太史鞋(이대 가정대)

19) 金用淑(1963), "宮中撥記의 研究", 「향토 서울 18호」,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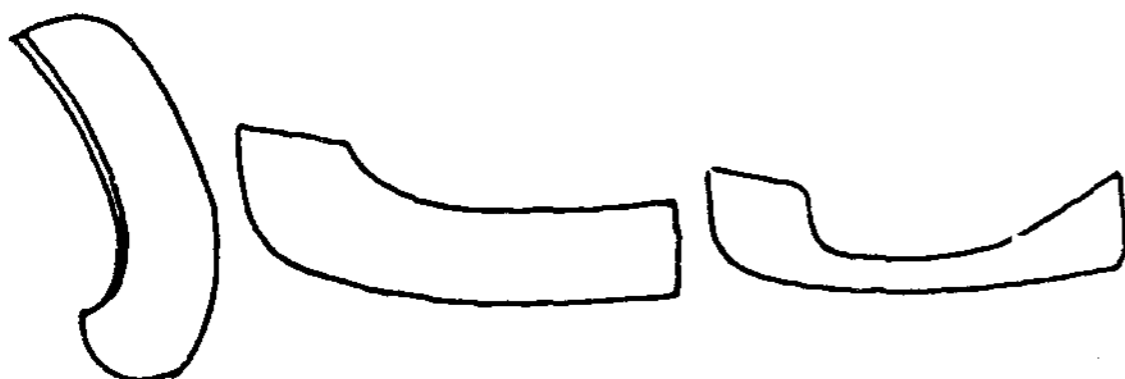
〈圖 25-1〉 皮鞋(전남 구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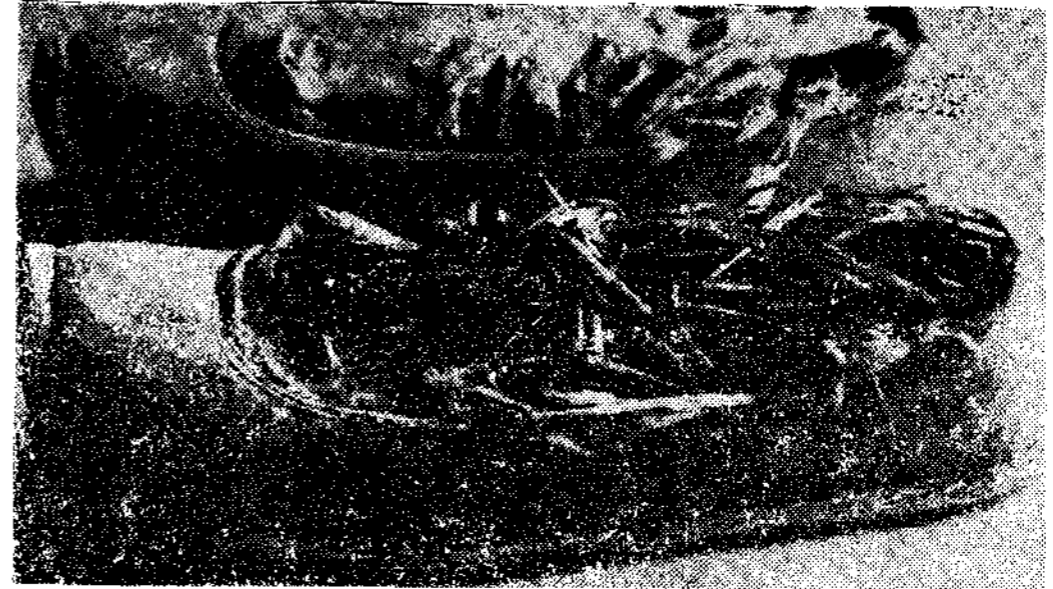
〈圖 25-2〉 皮鞋(전남 구례군)



〈圖 25-3〉 皮鞋의 앞코(전남 구례군)



〈圖 26〉 鞋의 형태 변화



〈圖 27〉 발탁신(전남 구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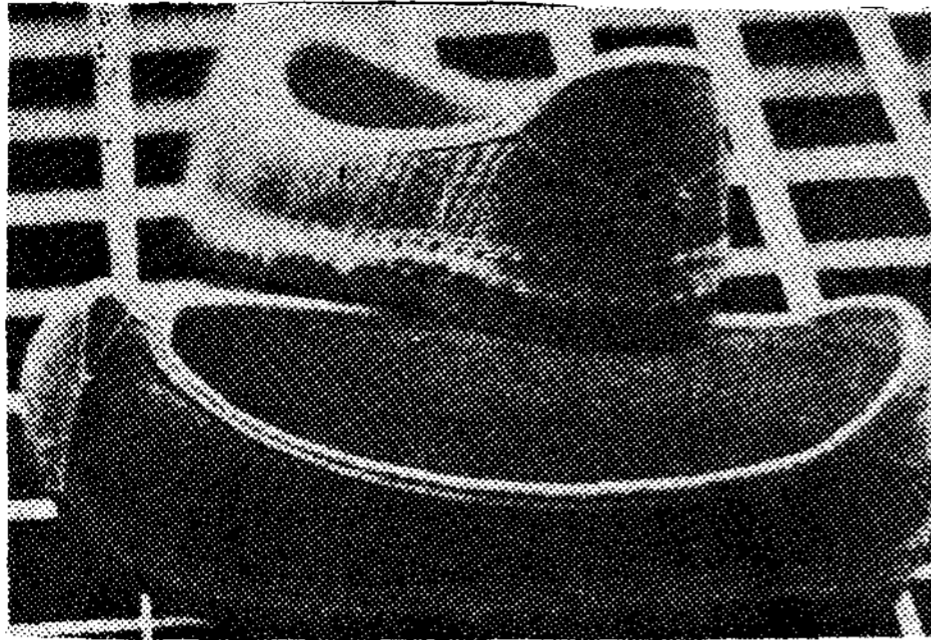
여자용 신의 형태는 唐鞋〈도 28〉·雲鞋〈도 29〉를 통하여 볼 수 있는데, 모두 운두가 얇고 앞코가 뾰족하면서 살짝 올라간 형태이다. 여자용 신은 고구려 벽화에서 보았던 履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고, 남자용 신에 비하여 신 윗타리가 낮은 형태로 앞코에서 뒷축에 이르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룬 것은 변화가 없고, 다만 조선후기에 들어와 앞코가 뾰족하면서 도톰한 형태가 되었다고 본다.



〈圖 28〉 唐鞋(성신여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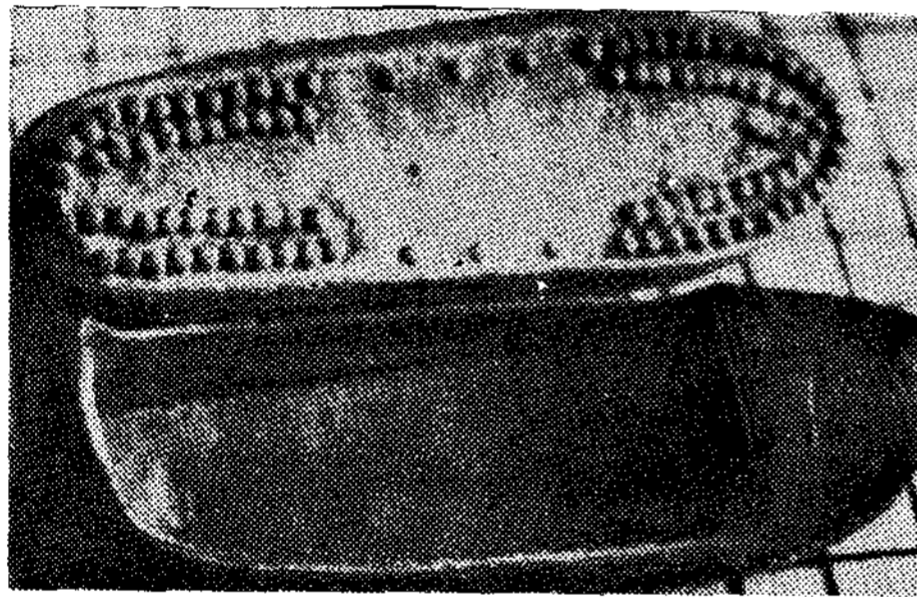


〈圖 29-1〉 雲鞋(석주선 기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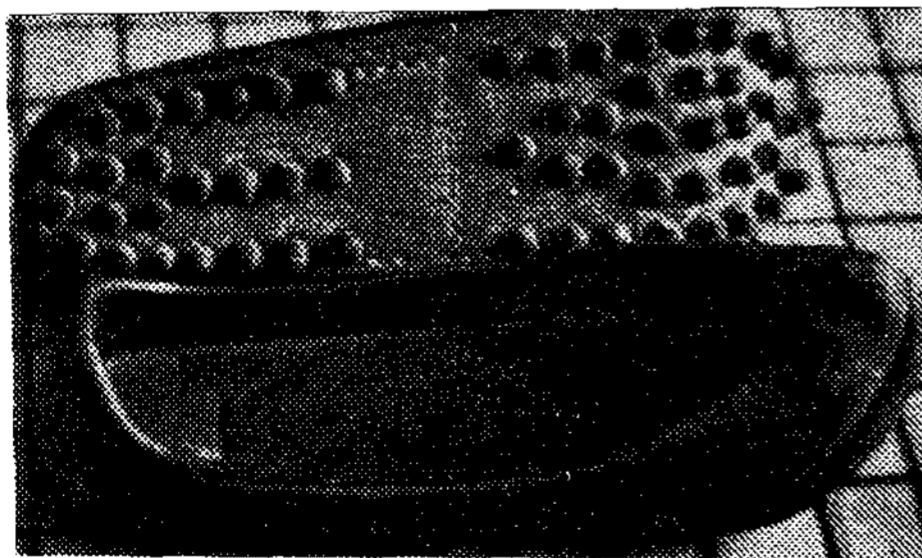


〈圖 29-2〉 雲鞋(이대 가정대)

男女共用的 신으로 진신을 보면 남자용은 태사혜 형태이고, 여자용은 당혜의 형태이다. 바닥에 박힌 징은 <도 30-2>처럼 촘촘히 박힌 형과 <도 30-1>처럼 가장자리를 둘러박는 형이 있는데, 男女의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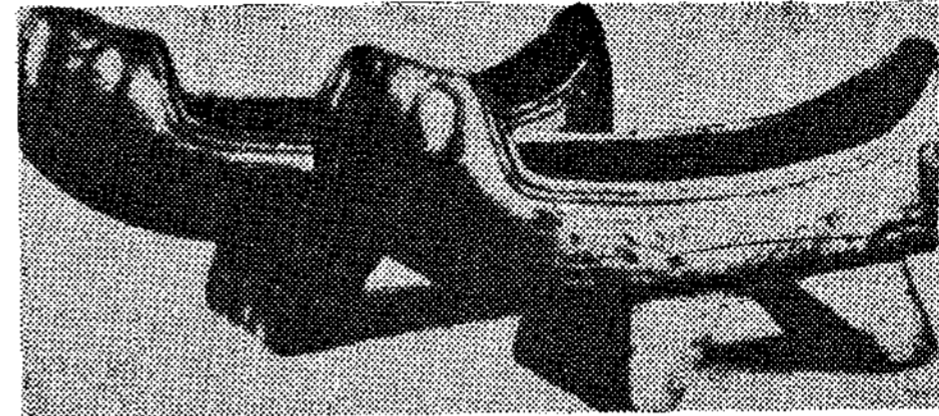
〈圖 30-1〉 진신(이대 가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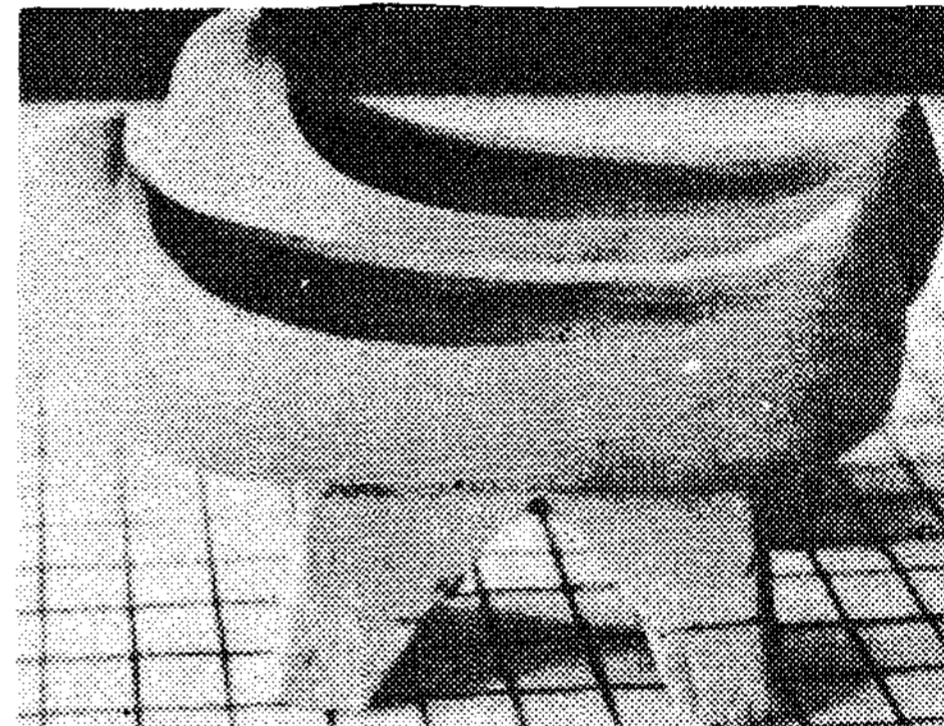
〈圖 30-2〉 진신(이대 가정대)

나막신은 나무를 깎아내어 만든 것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높은 굽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운두의 형에 따라 곤돌라형, 발막신형, 月刀형, 고무신형, 구유형으로 나누며, 곤돌라형은 여자용이 많고 발막신형은 남자용에 많다. 코의 형태는 당코형과 발막형으로 나누는데, 당코형은 코끝에서 울까지 이어지는 코의 길이가 짧은데 여자용이 많고, 남자용은 코가

둔한 편이다. 발막형은 코 길이가 당코형보다 길고 두께도 두껍고 남자용이 많다. 굽이 앞뒤가 뚜렷이 나누어진 것은 남자용이고 八字형으로 된 것은 여자용으로 男·女의 형태적 차이가 나타난다. <도 31-1, 31-2>



〈圖 31-1〉 나막신(한국 민예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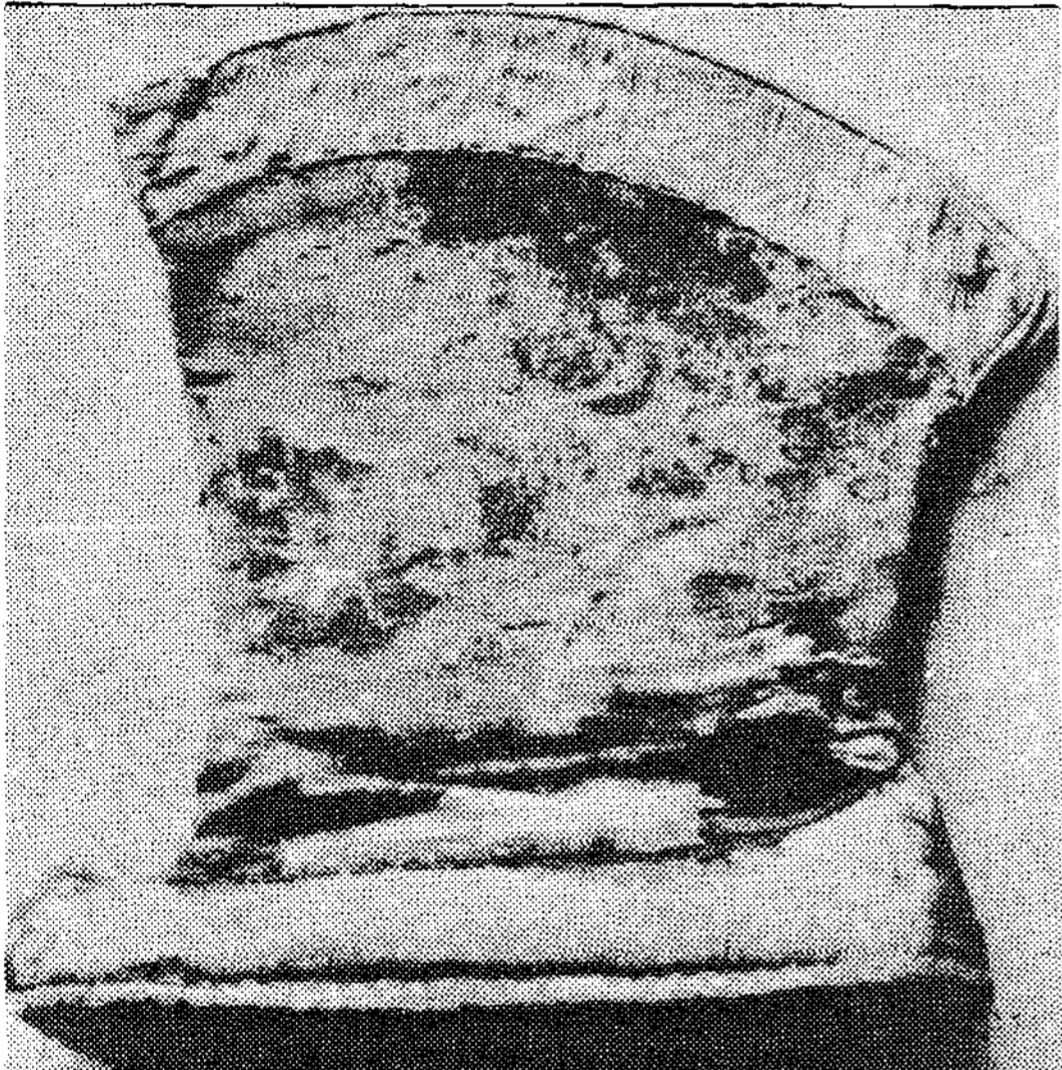
〈圖 31-2〉 나막신(이대 가정대)

草·麻鞋는 上古以來 가장 많이 신겨온 것으로, 앞코 부분과 신의 뒷부분은 메꾸어 지지 않은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미투리는 짚신에 비하여 앞의 충수가 많아 촘촘하고 곱게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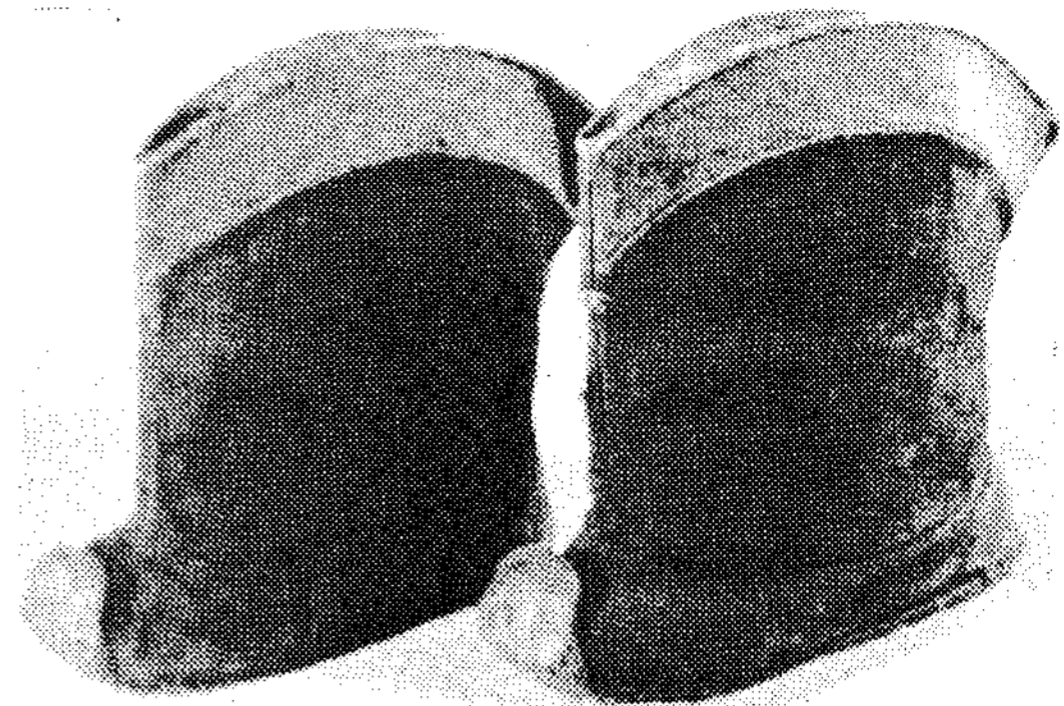
靴는 三國時代 以來로 上流階級에서 신어온 신으로 벽화에서 보였던 靴와 朝鮮時代 유물을 비교하면 기본형은 변화가 없다. <도 32-1>은 18세기 중기의 유물로 아랫부분이 조선후기 여성용 신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도 32-2>와 時代的 차이가 있는지 당시 신의 流行에 관계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도 32-2>(18세기 중기)는 <도 32-3>(조선후기)와 확실한 차를 나타내어 時代的 의미를 보여준다. 즉 18세기 중기의 것이 신의 앞부분이 약간 들려 있는데 비하여 조선후기의 것은 신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어 靴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신의 바닥이 위로 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

대 水鞋子의 형태를 보더라도 말기의 것은 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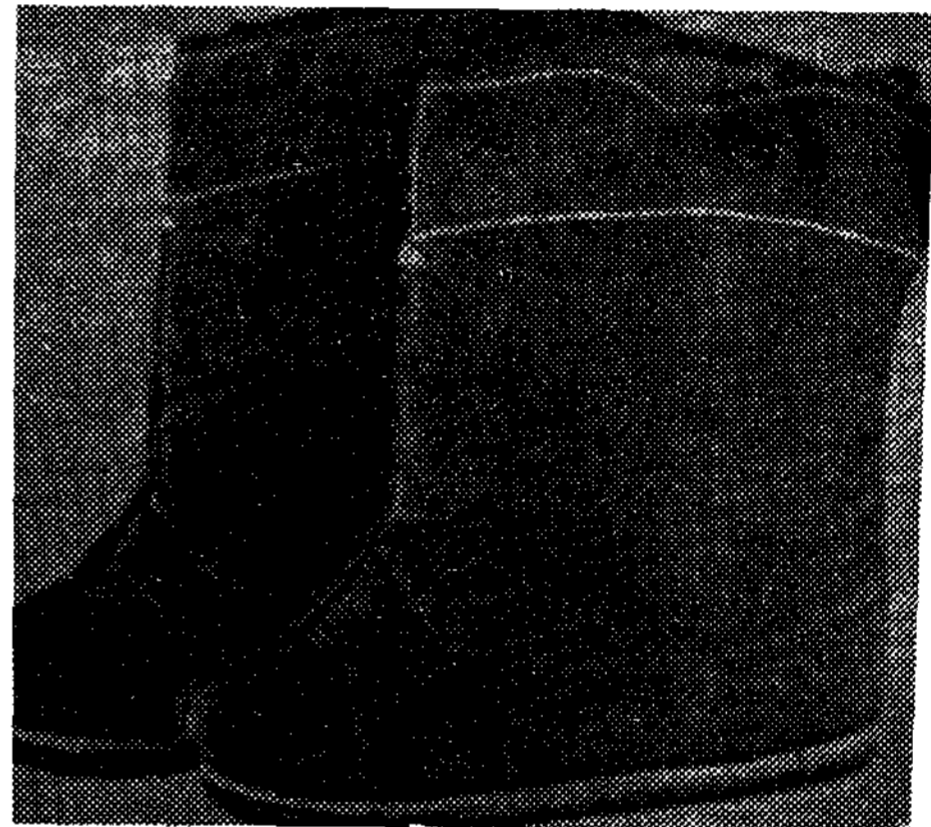
<도 32-4>는 國末의 木靴로 앞의 것이 신의 아랫부분을 만들어 그 위에 신목을 대어놓은 형태임에 비하여, 신바닥에서 신목까지가 붙어 있는 형태에 선을 대어 놓아 형태적 차이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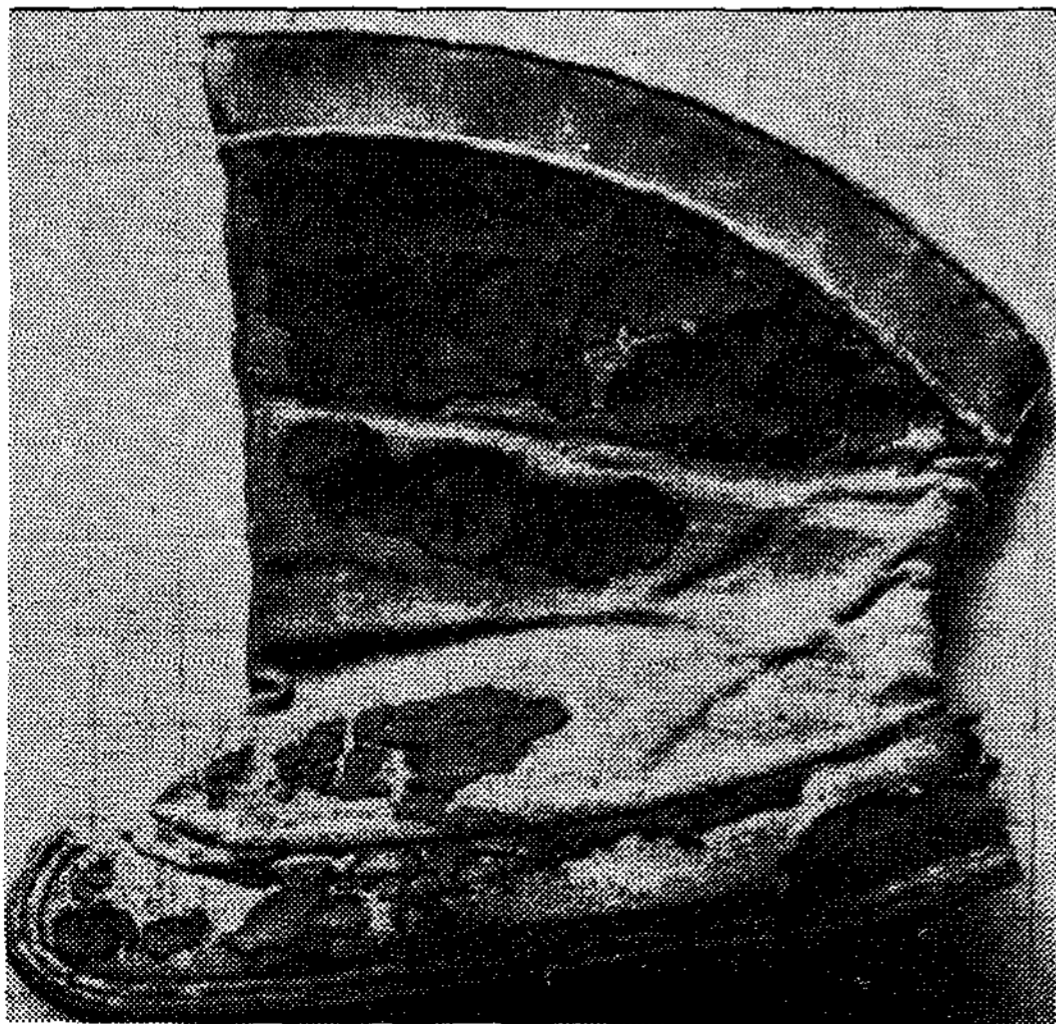
<圖 32-1> 黑皮靴(전남 구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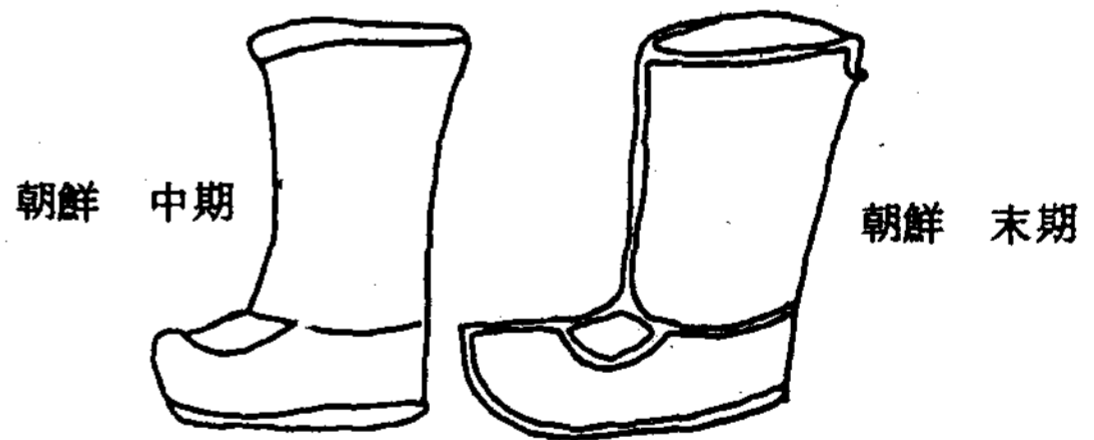
<圖 32-3> 木靴(온양 민속 박물관)



<圖 32-4> 木靴(성신여대 박물관)



<圖 32-2> 黑皮靴(전남 구례군)



<圖 33> 水鞋子의 형태(한국 장신구 미술 연구)

이상에서 유물을 통한 형태적 분석을 종합해 보면, 신은 고구려 벽화 그림의 履형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남자용은 앞코가 넓적하며 윗타리가 낮아 코에서 윗타리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는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여자용은 조선중기까지는 남자용과 비슷한 형태였으나 말기에 이르러 신을타리가 낮고 앞코가 뾰족한 형태가 이루어졌다.

靴도 고구려의 靴형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 다만 세부적인 형태의 차이가 보여져 후

대로 올수록 신의 바닥이 위를 향하게 되며, 國末의 木靴는 신의 바닥과 목부분이 같이 연결된 형태로 바닥도 일직선으로 되어 시대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B. 文樣과 色

총 80점의 유물중 문양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사혜 7점, 당혜 4점, 운혜 4점, 꽃신 6점, 진신 10점, 나막신 8점, 皮鞋 2점이 있다. 문양의 종류는 태사문, 운문, 식물문으로 나눌 수 있다.

太史紋은 太史鞋의 특징인데 이 線紋은 의미가 없이 장식적으로만 한 것으로 항상 신의 앞과 뒤측에 좌우 대칭되게 넣었다. 남자용 신에서는 線이 가늘지만 크고 대담하고, 여자용 신에는 고작 아담하여 여성스럽다. 이 太史紋이 나타나 있는 신은 太史鞋, 唐鞋, 진신, 나막신 등이다. 또한 <도 25-3>에도 태사문과 비슷한 線紋이 있는데, 태사혜와 같이 2줄의 線으로 되어있는 점은 같지만 좀 더 굵고 대담하며 곡선적이다. 이는 당혜에서 보이는 선보다 더 곡선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데, 이 선은 18세기 중기에 사용되었던 태사문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이 형태가 후기에 가서 가늘고 직선적으로 변하여 태사문으로 정착한 것으로 본다.

雲紋은 雲鞋에 들어가는 특징적인 문양으로 雲紋의 수를 놓거나 구름무늬가 있는 비단을 댄 것이다. 원래 雲紋은 朝鮮王朝時代에 가장 愛用되어온 것으로 다른 吉祥紋樣과 혼용되어 왔다. 또한 雲鞋에는 앞코에 대나무 잎사귀 무늬인 죽엽의 무늬가 들어가고, 뒤측에는 반원형의 뒷머구리를 대고 태극 무늬의 굽뺨이를 붙인다. <도 29-2>

식물문으로는 꽃무늬를 들 수 있는데, 地紋으로 된 것과 비단위에 그리거나 수놓아진 것이 있다. 신에 나타난 문양은 나막신을 제외하고는 작은 꽃무늬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신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문양이 작아져서 귀엽고 아담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신에 사용된 色은 태사혜, 진신, 당혜, 운혜 등에 보인다. 太史鞋는 무늬없는 검은 비단이나 가죽에 백색 線紋을 대는 것이 기본이고, 어린

이용으로 연두빛 바탕에 다홍문이나 다홍바탕에 연두문을 놓았다. 그외에 남자 신의 배색으로는 옥색바탕에 남문, 검정 바탕에 자주문, 회색 바탕에 흰문, 초록 바탕에 자주문을 하였다²⁰⁾고 한다. 진신은 주로 흑색이나 밤색계통으로 문양의 색도 동일한 것이 대부분인데 어린이용이나 여자용의 것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당혜는 紅바탕에 靑文을 놓은 것을 청목댕이, 靑바탕에 紅文을 놓은 것을 홍목댕이라 하였다. 또한 운혜에서는 가장 다양한 색의 사용을 볼 수 있는데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C. 材 料

유물 총 80점에 나타난 材料는 類型에 따라 가죽, 비단, 麻, 草, 木 등으로 區分되며, 같은 類型이라도 재료에 따른 차이가 있다.

신에 사용되는 가죽으로는 흙피, 백마피, 쟁피, 늑피, 비김, 백오피, 구피, 담 등이 있다. 미투리에도 가죽이 사용된 예가 있어 신분에 따른 재료의 뚜렷한 차이를 의미한다.

비단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태사혜, 당혜, 운혜가 있고 이에는 겨울용으로는 공단, 제변단, 구름운단이 사용되고, 여름용은 숙고사나 생고사가 사용된다.

麻로 된 것은 머투리라 하여 草로 만든 짚신보다 고급품이었고, 草는 다시 고운 짚신을 만드는 왕골(莞草), 부들(香蒲)과 서민용 벗집으로 구분이 된다.

나무로 된 것은 나막신인데, 배나무, 박달나무, 피나무, 오동나무등이 사용되었으며 오동나무를 가장 고급품으로 취급하였다.

V. 신의 美的特性과 服飾史的 意味

신은 복식과 같이 人間生活의 需要에서 생겨난 자연발생적인 산물이며, 生活文化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성을 띠면서 실용적인 목적 뿐 아니라 의례적·장식적 요구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신은 복식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보다 신 자체를 통하여 사회적 배경, 신분계급, 시대적 유행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은 공예적인 색

20) 高卿淑(1981), "韓國의 靴鞋類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채를 띠기 때문에 유물의 형태, 재료, 문양, 색 등을 통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찾아 볼 수가 있다.

유물 총 80점의 조형적 분석에 따른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형태 ; 조선시대 신의 형태는 鞋·靴의 두 계통으로 분류된다. 鞋의 형태는 삼국시대의 기본형에서 변화가 없고, 다만 조선시대의 남녀 신의 형태가 말기에 들어 독특한 형태로 변화하여 정착하게 된다. 즉 남자용은 고구려 벽화에서 보였던 형태가 조선 중기까지 계속되다가 말기에 들어 앞코가 넓적하고 코에서 윗타리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는 형태로 고정된다. 여자용은 앞코가 뾰족하고 신 윗타리가 낮고 앞코에서 뒤축에 이르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 靴의 형태도 삼국시대 이래로 기본형에서 변화가 없으나 조선후기의 것일수록 신 바닥이 위로 많이 향하고 있다. 또한 國末의 木靴는 신바닥이 일직선이고 신목이 아랫부분에 연결된 형태이다.

문양 ; 유물에 나타난 문양은 태사문, 운문, 식물문으로 나눌 수 있다. 태사문은 태사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線紋이지만, 당혜·진신·나막신에도 나타난다. 남·여성용에 차이가 있어 남자용은 가늘고 대담한데 비하여 여자용은 작고 아담한 형태이다. 18세기 중기의 皮鞋에도 태사문과 유사한 문양이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의 것에 비해 굵고 곡선적이다. 운문은 태사혜에 수놓아져 있고, 운혜의 바탕문에 보인다. 식물문은 운혜 꽃신 나막신에 나타나 있는데 주로 작은 꽃잎과 줄기로 표현되어 있다.

색 ; 유물 중에서 사태혜·진신·당혜·운혜를 통해 색을 관찰하였다. 이중 태사혜는 검정이나 초록색 바탕에 흰색이나 홍색 문양이 대부분이고 진신은 밤색, 흑색으로 되어 있으나 홍색이나 초록색 문양이 있어 특이하다. 당혜는 기록과 달리 유물에서는 다양한 색이 나타나지 않았고, 운혜에서 多色配色의 조화가 나타나 바탕색·코의 색·눈의 색을 각각 달리 배색하였다.

재료 ; 신에 사용된 재료는 가죽·비단·草·麻·木등이다. 신은 유형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달랐고 같은 유형이더라도 신분에 따라 사용된

재료의 차이가 있었다.

신의 服飾史的 意味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생겨난 신은 社會·文化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공예적인 색채를 띠면서 발달해 왔다. 신은 服飾의 한 요소이지만 다른 服飾에 비하여 눈에 잘 띄이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여성들의 긴 치마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신은 형태나 색, 문양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것을 보여준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신의 기본형을 보아온 후로 조선시대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고 신의 곡선적인 형태도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服飾에 있어서 저고리의 배래나 도련등의 곡선과 함께 발달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신의 발달은 신 자체만의 변화가 아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통한 신의 착용 모습을 보면, 신의 곡선은 복식의 곡선과 잘 어우러져 잘 차려입은 服飾을 총정리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服飾은 옷뿐만 아니라 장신구나 신에 있어서의 조화가 중요하여 신의 服飾史的 意味를 찾을 수 있다.

VI. 結 論

本 研究는 우리나라 신에 관하여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문헌과 유물에 나타나는 신의 착용과 조형적 분석을 통한 미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朝鮮時代 以前의 신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실제 착용된 예는 高句麗 古墳壁畫나 古墳出土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履·靴의 기본형이 나타나 있어 조선시대 신과 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고분출토의 金銅履는 크고 견고하며 신에 따라 장식이나 영락이 달려 있고 바닥에 스파이크가 대어져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들 金銅履가 祭典이나 儀式때 실제 사용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와같은 신의 착용이 朝鮮時代に 들어서신 신분에 따른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시대는 신분계급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服飾에 있어서도 신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歷代 王들은 사회 금지와 신분에 맞지 않은 신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신에 대한 금제를 내렸고 신분별에 따라 사용되는 신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조선시대 신의 유물을 통하여 형태·문양·색·재료 등의 조형적 분석을 통한 미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면에서는 조선시대의 신이 삼국시대 이래로 그 기본형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대가 내려오며 따라 남자용 鞋는 앞코가 넓적하고 코에서 울타리에 이르는 부분이 각이 지는 형태로 변하였고, 여자용은 앞코가 뾰족하며 신 울타리가 낮은 형태가 되었다. 靴에 있어서도 시대적 차이가 뚜렷하여 後代가 될수록 신의 바닥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되었고, 國末의 木靴는 신의 아랫부분과 목이 연결된 형태로 신바닥이 일직선의 형태였다.

2) 신의 문양은 太史紋·雲紋·식물문등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 문양은 작고 아담하게 표현되어 있어 신에 특색을 나타내 준다.

3) 색은 남자용보다 여자용 신에서 다양한 색의 사용이 나타났고, 신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색도 달랐다.

4) 재료면에 있어서 신은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가 달랐고, 같은 유형이더라도 신분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신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신이 개화기 이후 洋服化와 더불어 필요없게 되었고, 1920년경부터는 고무신의 등장으로 여러가지 유형은 우리 고유의 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후 점차 우리나라의 전통신은 사라져 갔고 오늘날에는 남·녀 고무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장식적 목적이나 옛것을 살리려는 움직임에 의해 전통신이 재현되고는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이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을 찾아내어 현대 생활 감각에 맞도록 재조명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高脚淑(1981), 「韓國의 靴鞋類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未刊行).
關根眞隆(昭和 49), 「奈良朝服飾の 研究」, 本文編, 東

京: 吉川弘文館刊行.
_____ (昭和 49), 「奈良朝服飾の 研究」, 圖錄編, 東京: 吉川弘文館刊行.
國立民俗博物館(1982), 「國立民俗博物館」, 通川文化社.
國立博物館(1948), 第 1 冊 「壺杆塚·銀鈴塚」
_____ (1962), 第 3 冊 「義城塔里古墳」
_____ (1964), 第 5 冊 「皇五里 4, 5 號·皇南里破壞發掘調查報告」
金基雄(1981), “장신구”,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비교한국문화」, 삼성출판사.
金東旭(1981), “衣袴着用民族 日本征服王朝說”, 「일본문화의 원류로서의 비교한국문화」, 삼성출판사.
_____ (1973),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金用淑(1963), “宮中발기의 研究”, 「향토서울」 제 18 집, 南一印刷株式會社.
_____ (1964), “이조후기 內人生活研究”, 「아세아여성연구」 제 3 호,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출판소.
_____ (1965), “宮中여성 生活研究”, 「아세아여성연구」 제 4 호,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출판소.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1974), 三省出版社.
문화재관리부(1985), 「황남대총」 北墳.
朴晚仁(1983), “우리나라 나막신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未刊行).
朴秀子(1968), “우리나라 신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未刊行).
朴一遠, 「秋官志」 제 4 편.
杉本正年(1981),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_____ (1984),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東京: 文化出版局.
「三才圖會」, 衣服三卷.
「서울대학교 박물관 도록」(1983).
「世宗實錄」
「宣祖實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도록」(1984).
「成宗實錄」
孫敬子·金英淑(1982), 「韓國服飾史資料選集」, 조선편 I, II, III, 敎文社.
「영남대학교 박물관」(1977), 영남대학교.
오희경(1982), “조선조 靴鞋공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未刊行).
「온양민속박물관」(1983).
王宇清(1976), 「中國服裝史綱」 修訂本,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원광대학교 박물관 도록」(1984).

原田淑人(1967), 「増補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柳喜卿(1983),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李京子(1985),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李如星(1945), 「조선복식고」, 白楊堂.
 이은창(1978),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조공예」(昭和 52年)
 「李朝の美=民藝」(昭和 48年), 毎日新聞社.
 「日本服装大百科事典上」(1969), 東京: 피복문화협회.
 「正祖實錄」
 「조선시대복식 특별전 도록」(1986), 단대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조선총독부(1924a), 「慶州金冠塚と其遺寶」
 _____(1924), 「慶州金鈴塚・飾履塚」
 _____(1927), 「梁山夫婦塚と其遺寶」
 「中國歷代服飾大冠」(1973), 중국: 行政院 新聞局登記局.
 「中宗實錄」
 한국문화보호협회(1968), 「문화재대관 7. 보물」.
 「한국민예미술」(1975),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美 22. 고분미술」, 중앙일보 계관미술.
 「호암미술관 명품도록」(1984), 삼성미술문화재단.
 황수영(1963), 「金銅履의 新例」, 「고고미술」 4권 1호.
 黃沅根(1980), 「한국장신구미술연구」, 一志社.